

#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국립의대 설립 속도 낸다

송하철·이병운 총장, 이주호 부총리·김영록 지사 등과 '통합' 결성 의대 설립 단일안 도출 가능...전남도민 30년 숙원사업 추진 청신호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립대 간 통합으로 전남권 대표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통합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과 글로벌대 추진으로 인한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지역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에 인재를 공급하는 거점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전남도와 대학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이는 큰 틀에서의 합의로, 앞으로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국립 의대 구체적인 설치 방안 마련, 대학 통합에 따른 정부 전폭적인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만큼 앞으로의 논의가 더 어렵다는 의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이날 오후 순천대에서 열린 '순천대 글로벌대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앞서 마련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오찬 간담회에서 대학 통합을 통해 국립의대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 대학 총장은 "대학 통합이 어려운 길이고 구성원들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1도 1국립대 취지에 따라 대학을 통합하고 국립의대 문제도 통합의대

방향으로 가면 대학의 발전도 기할 수 있고,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대 통합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이뤄진 결정이라는 게 참석자들 전언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1도 1국립대 취지 설명과 함께 "선도적으로 통합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더 큰 지원을 할 방침"임을 밝히고 "기존의 글로벌대 지원 뿐 아니라 별도의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 대학의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번 1도 1국립대 취지에 따라 양 대학이 통합하게 되면 이를 통해 지역에 더 큰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전남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의대 문제도 통합의대 설립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다. 대학통합을 하게 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두 국립대가 통합을 결심하면서 학생 수 감소, 인재 유출 등으로 정체된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 입지를 일원화하는 공모 과정에 대한 반발 기류 등으로 우려가 제기됐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의 단일안 도출이 가능해져 30년 숙원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 대학은 이날 통합 합의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통합을 성사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 대학 총장들의 통합 합의 상황을 지켜본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은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것은 함께 상생하는 길로 대학도 살리고 의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순천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대는 또 이날 전남도 등 지자체와 협력해 친환경 농장(그린스마트팜), 에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 3대 특화 분야의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졸업생을 취업시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대 글로벌대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이 14일 순천대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강소지역기업 육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알립니다

## '이건 음악회' 독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2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공연  
오늘부터 광주일보사서 무료 배포

광주일보사가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는 제35회 '이건 음악회'를 후원하며 초대권을 독자 여러분에게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건 음악회는 문화 메세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건(EAGON)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민들을 위해 지난 1990

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회입니다.

음악회 35주년을 기념해 1979년 토론토에서 창단한 뒤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를 초대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협연자로는 바로크 바이올린의 여왕 레이첼 포저 및 오보이스트 신용천이 나섭니다.

관람권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일보 10층 문화사업국에서 선착순(1인 2매) 배부합니다. 문의 062-220-0541

光州日報社

## "기념관·문화관·대형 행사 한강 이름 사용 원치 않아" 한승원, 광주시에 '딸의 뜻' 전달

"딸의 이름(한강)으로 큰 거 짓고 하는 것은 안된다. 대형 행사하는 것도 딸이 싫어한다"

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검토했던 이른바 '북한문화공간'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한강 작가가 아버지 한승원 작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대형 사업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16면>

한강 작가는 대신 '책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뜻에 따라 다양한 책 읽기 지원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집필실 '해산 토굴'을 찾아 한승원 작가와 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사업과 관련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에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를 담은 이른바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하고, 관련 사업의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승원 작가는 광주시의 제안에 대해 "한강은 내 딸이 아니라 이미 독립적인 개체가 됐다. 장흥군에서도 (한승원·한강) 부녀 문학관 건립을 거론했는데, 딸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캠핑카, 광주 공영주차장에 '암체 장박' >6면

위경혜 호남 극장 영화사 - 영사기사의 애환 >18면



KS 리허설... 김도영·한준수 홈런 '평평'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문명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세계를  
유니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 사진·영상 공모전

2024 전라남도

###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응모기간 : 2024. 2. 5.(월) ~ 10. 31.(목)  
공모주제 : 전남의 자연, 문화, 관광, 정책의 4개 분야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jntv.go.kr>  
응모작,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원본영상은 FullHD급(1920x1080) 이상으로 제출  
접수방법 : 전남TV 누리집(jntv.go.kr)

### 디지털 사진 공모전

응모기간 : 2024. 7. 8.(월) ~ 10. 25.(금)  
공모주제 :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주제  
(자연, 문화, 예술, 산업,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등)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jntv.go.kr>  
응모작,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접수방법 : 전남TV 누리집(jntv.go.kr)